

# 자 화 이 기 리 라

2015 VOL.15

## 자활센터에 한걸음 다가가기

부채해소를 돕는 착한 저축  
'드림셋 사업'을 소개합니다  
자산형성저축 지원사업

아름다운 추억 에세이  
낭만과 힐링을 주는 이어도여행  
제주이어도 자활 관광사업

다시 웃음을 되찾게 해준  
자활사업단 적응 이야기  
강서지역자활센터 손나라 사업단  
한세정 선생님





제2회 자활사진전 금상작 **강건양**(정음지역자활센터)

**<자활읽기>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자활읽기>는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www.cssf.or.kr](http://www.cssf.or.kr))  
→ 소통마당 → 홍보자료실에서 e-book(전자책)과  
PDF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ISSN 2288-0445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자활읽기> 통권 제15호

발행일 2015년 9월 발행인 심성지 담당자 김지선 발행처 (재)중앙자활센터 ☎ 02-3415-6941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155 해암빌딩 2층 [www.cssf.or.kr](http://www.cssf.or.kr)

디자인·인쇄·제작 동아이앤디 ☎ 02-2020-1760 표지 일러스트 이산혜 내지 일러스트 김민지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의 자료는 중앙자활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외부 필자의 글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활익기

2015 VOL.15

## Contents

- 04 포토 에세이  
희망 하나만 있다면
- 06 자활센터 소개  
자활센터에 한걸음 다가가기
- 08 신규사업 둘러보기  
부채해소를 돕는 착한 저축  
'드림셋 사업'을 소개합니다  
자산형성저축 지원사업
- 10 자활경제  
저소득층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은행 상품과 친해지기
- 12 성공스토리  
부산광역자활 커피사업단  
'가온비'가 일귀넌 같이의 가치  
가온비 한은영 점장, 최근화 씨
- 14 자활센터와 친해지기  
자활사업, 이색사업단과 함께해요
- 16 자활상품이 좋다  
낭만과 힐링을 주는 이어도여행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청정지역 제주,  
진정한 관광천국을 향하여...
- 21 안내  
자활한마당
- 22 희망스토리  
다시 웃음을 되찾게 해준  
자활사업단 적응 이야기  
강서지역자활센터 손나래 사업단  
한세정 선생님
- 24 추천 먹거리  
나눔푸드 '녹수청산'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맞으세요  
수제유과, 전북진안  
잔칫상에 꼭 오르던 과자,  
유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 28 친절한 복지정보  
나에게 꼭 맞는 개별급여  
'맞춤형 급여'로 행복 맞추기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30 영화 들여다보기  
파고르 사람들, 브란트 사람들  
영화로 보는 협동조합의 가치
- 32 자활TALK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 33 카툰 에세이
- 34 지난호 평가  
새 옷 입은 자활익기 어땠나요?
- 35 서로좋은가게

## 희망 하나만 있다면

희망이란

크고 엄청난 것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고,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지조차 않는

숨겨진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이란

그것을 아끼고 키워 올리는 사람에게

넉쿨처럼 자라올라서...

벽을 뚫는 담쟁이처럼

삶을 견고하게 하고

더 높고 더 드넓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한수산의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 중에서



# 자활센터에 한걸음 다가가기

전국 각지에 위치한 246개 지역자활센터, 궁금하시죠?  
각 센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앙자활센터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민간자원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활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자활사업 지원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 자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300여개 자활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및 정부재정사업의 연계로 양질의 사회적 경제 영역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전국 2000여명의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의 직급별, 계층별, 기관별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활사업 서비스 전문성 확보와 종사자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 자활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컨설팅 및 광역단위 자활기업 관리





### 광역자활센터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광역-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해 자활사업의 내실 및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 체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지역에 14개소 광역자활센터를 운영중입니다.

#### 주요사업

-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 및 알선
-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 시·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 시·도 단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탁 운영
-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Microcredit 집행

### 지역자활센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실업·기술·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희망을 찾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2015년 현재 246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입니다.

#### 주요사업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부채해소를 돕는 착한 저축 '드림셋 사업'을 소개합니다

## 자산형성저축 지원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저축 지원사업인 '드림셋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 ☑ '드림셋 사업'이 무엇인가요?

'드림셋'은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자활근로 일자리와 자산형성(내일키움통장)을 지원함으로써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관계자와 그 가구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자(접수자 포함)와 그 가구원

\* **가구원**: 채무관계자 또는 신용회복지원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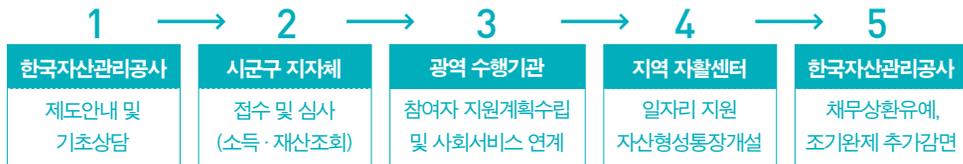
둘, 1차 요건에 해당하면서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 심사를 통과한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원/월)

| 가구 | 소득 | 2015년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120% | 보험료     |
|----|----|-------------|------------|---------|
| 1인 |    | 617,282원    | 741,000원   | 25,870원 |
| 2인 |    | 1,051,048원  | 1,261,000원 | 41,514원 |
| 3인 |    | 1,359,688원  | 1,632,000원 | 53,962원 |
| 4인 |    | 1,668,329원  | 2,002,000원 | 66,275원 |
| 5인 |    | 1,976,970원  | 2,372,000원 | 77,591원 |
| 6인 |    | 2,285,610원  | 2,743,000원 | 90,409원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나, 실제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 지자체 방문시에는 기관추천서 지참, 채무관계자 가구원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 일자리 지원.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기본금 월 88만 원 수준(실비별도)과 자활사업단 매출 수익금이 추가지원(월 최대 15만원)되어, **월 최대 110만 원 내외**의 수급(실비 포함)을 지원합니다.

※ **자활근로란?**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 운영

둘, 내일키움통장 개설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본인 적금(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과 내일키움장려금(1: 1),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 원)을 포함해, **3년 적립 시 최소 720만 원 적립** 가능합니다.

※ **내일키움통장** 3년 적립 시 최소 720만 원, 최대 2,000만 원 자산형성 가능!!

※ **지원조건** : 3년간 꾸준히 저축 및 자활근로 성실참여, 부채상환 노력, 연2회 교육 및 연2회 사례관리 참여(적립금의 20%는 채무상환에 의무 사용)

※ **지원금 사용범위** : 주택구입·임대, 교육훈련비, 창업·운영자금, 부채상환 등으로 용도 활용

셋, 부채감소 지원. 채무상환유예 : 채무관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경우에 최대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조기완제 우대감면 : 자활근로사업을 성실히 이행한 후 적립금으로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경우에 15% 우대감면

※ 자활사업 참여 및 종료에 따른 별도 확인서 제출(지자체 발급)

**☑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기간 : 2015. 8. 31(월) ~ 2015. 9. 11(금)
2. 신청장소 및 방법 : 해당 주소지 시군구(자활사업 관련부서)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초상담 후 시군구 방문
3. 제출서류 : 기관추천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4. 상담 및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국번없이 1397

**홈페이지** <http://www.hopenet.or.kr> 또는 검색창에 '서민금융나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 <http://www.ccrs.or.kr>

**해당 시군구 자활지원팀 및 광역/지역자활센터**

# 저소득층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은행 상품과 친해지기

저소득층 자산관리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목돈 마련이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면서 단계별로 목돈을 모으고,  
주택 구입자금과 자녀 학자금 등 필요에 따라 목돈의 규모를 늘리고 세분화해 나가면 좋다.



## 세금우대, 비과세 상품으로 목돈 마련하기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 목돈 마련을 돕는 상품을 먼저 살펴보자. 세금을 우대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서, 세금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좀 더 높은 이자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만 61세 이상이거나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은 농어촌특별세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 납입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한도에 맞춰 가능한 수익률이 높고 세금 부담이 큰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은 2015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로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우대금리를 더해 대략 4%대의 초기금리가 적용된다. 총 급여 연간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가입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펀드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대신 감면 받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5년 내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6.6%가 추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연내 일몰되는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대신해 정부가 내놓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내년에 출시된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5년이다. 인출시 최종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해 절세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의 절세형 상품은 가입자격에 소득 제한을 두었으나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자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총 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중산층 근로자들도 가입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세금우대 상품은 통합적으로 납입한도를 관리한다. 절세 효과가 크고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가입하고 연간 총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된다.

### 서민지원 대출상품 알아보기

저소득층의 지출 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할 부분은 좋은 대출 상품을 이용해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빚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출상품을 살펴보고, 적합한 것을 선택하자.

‘햇살론’은 30~40%대의 대부업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개인신용 6~10등급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나 근로자가 대상이다. 생계 자금은 물론 창업·사업·대환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제도권 금융 대출이 곤란한 소외 계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개인신용 7등급 이하가 대상이다. 사업자금은 2,000만 원까지, 창업자금은 7,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5년 내 상환 계획을 짜면 된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맞춤형 은행 대출도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서민이 대상이고 개인신용 6~10등급이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7~12%대의 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된다.

최대한 금리나 상환 조건이 좋은 대출을 선택하고, 조금씩 목돈이 마련될 때마다 부채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원금이 줄어야 이자 비용이 줄고 부채 관리와 상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자면 가능한 한 중도 상환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대출을 이용하면 좋다.

### 주거급여와 서민 지원 금융 활용하기

대출이자 비용 다음으로 상당한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비용이다. 주거급여 등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혜택은 최대한 활용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한다.

7월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간 주거급여제도는 소득과 주거형태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평균 월 11만 원 가량씩 97만 가구에 지급한다.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보다 지급액과 대상이 확대됐다.

무엇보다 장기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달 들어가는 주거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생활의 질적인 개선은 물론 자산 축적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글 |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세금우대, 비과세 상품 알아보기

| 구분   | 비과세종합저축                      | 재형저축   | 소득공제 장기펀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 납입한도 | · 5,000만 원                   | · 분기별 300만 원   | · 연간 600만 원  | · 연간 2,000만 원(3~5년 만기)  |
| 대상조건 | · 현재 만 61세 이상이거나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 | · 총급여 연간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br>·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 총 급여 연간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 모든 근로소득자나 사업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 상품특징 | ·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는 완전비과세         | · 7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비과세 단, 만기 이전 인출 시 감면 받은 세액 추징         | · 펀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단, 감면 받은 세액의 20%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부과<br>·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6.6% 추징 | ·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종합 포트폴리오 관리<br>· 인출 시 최종소득 기준으로 과세<br>·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 9.9% 과세 |
| 가입기간 | -                            | · 2015년 말까지 가입 가능                                      | · 2015년 말까지 가입 가능  | · 2018년 말까지 한시 가입   |

# 부산광역자활 커피사업단 ‘가온비’가 일귀넌 값이의 가치

가온비 한은영 점장, 최근화 씨

서로 다른 이들이 더불어 나아가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단 한 발짝 내딛는 데에도 충분한 이해와 배려, 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처한 입장과 환경도 다르지만 지금 한 호흡을 내쉬고 있는 한은영 점장과 직원 최근화 씨. 두 사람은 자활센터라는 울타리가 있기에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말한다. 여름 별보다 뜨거운 열정을 지닌 그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한은영 점장(왼쪽), 최근화 씨(오른쪽)

## 부산광역자활센터

2008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산지역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받아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자활을 도모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한 복지, 활력 있는 자활'을 추구합니다.

[www.busanjh.or.kr](http://www.busanjh.or.kr) ☎ 051-868-5866~7

부산시청 로비에 들어서면 기분 좋은 커피향이 먼저 반긴다. 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 너머로 ‘가온비’라는 커피전문점이 눈에 들어온다. ‘커피의 중심’이란 뜻의 이름을 지닌 이곳은 부산광역시활센터 커피사업단이 제작년 문을 연 카페다. 작은 규모임에도 6명의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어 다소 의아했지만, 끊이지 않는 손님 행렬을 보니 금세 이해가 간다.

공공기관 절전정책 때문에 청사는 후텁지근했지만 한은영 점장의 미소만큼은 상쾌했다. 지난 5월부터 이곳에 몸담고 있는 한 점장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활센터 수급자가 아니다. 커피교육 및 직원관리 담당을 위한 공개채용으로 자리를 맡게 됐다고 한다. 교육을 전공한데다 이전에 카페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그는 놀랍게도 “배우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습득한 것들을 미래의 자양분으로 삼고 싶었다는 것.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금, 한 점장은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변해가는 모습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저마다의 아픔으로 마음과 같이 입도 닫아버린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단답형이던 대답이 점점 길어졌고, 지금은 웃으며 편안하게 대화합니다”라며 기뻐하는 한 점장. 그는 이어 “자활센터로 인해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삶을 구축해 나갈 계기를 찾았으니 저는 사회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도록 작은 기술을 알려주는 게 역할이라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활센터가 더 널리 알려져 몸과 마음이 힘든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게 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부산광역시활센터는 카페 가온비를 비롯한 운영 사업단이 결성한 사업체에서 3년 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단, 동일한 자격의 동업자와 함께인 ‘두 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쉽지 않은 창업과 사업운영 동안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라는 의미로 보인다. 하나 보다 둘이 나온 건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진리이니 말이다. 한 점장과 함께 매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근화 씨는 3년째 근무 중



‘커피의 중심’이란 뜻의 이름을 지닌 가온비는 부산광역시활센터 커피사업단이 제작년 문을 연 카페다.  
가온비 ☎ 051-853-5866 📍 부산시 연제 중앙대로 1001

인 최장기 근무 직원이다.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최 씨는 지인으로부터 자활센터를 소개받아 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센터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고, 그것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얻고 평소 관심 있던 카페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 너무 좋았죠. 무엇보다 같은 뜻을 지닌 마음 맞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최 씨. 그는 고객들로 하여금 가온비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특수한 카페가 아닌 일반 커피전문점으로 여겨지길 바라고 있다. 결코 서툴거나 모자라지 않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이해가 아닌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의지가 결연해 보였다.

상냥한 리더십으로 카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한 점장과, 책임 의식을 갖고 술선수범하는 최 씨. 전혀 달랐지만 완전한 하나가 된 둘의 에너지가 시너지를 일으켜 가온비 시청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 및 사업 전파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통하고 있는 부산광역시활센터 커피사업단이 앞으로 그려갈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글·사진 | 박진혜

# 자활사업, 이색사업단과 함께해요

전국 각지에 위치한 247개 지역자활센터, 궁금하시죠?  
각 센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이색사업단을 잠시 살펴볼까요?

##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관광사업단 **그린터드림**

제주지역 자연자원과 전통문화가 결합된 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사업단으로 '사람도 자연이다'라는 모토 하에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에서 배우며 생각하는 즐거운 놀이공간입니다. 지역의 자연을 벗 삼아 즐기는 학습장으로 자연놀이터, 생태체험, 이야기가 있는 자연공방, 생태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련 분야의 교육을 통한 취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체험학습장에서는 전통놀이(비석치기, 오징어놀이), 생태환경체험교육(오름, 꽃자왈, 습지체험교육), 전통먹거리체험(삼색수제비, 주먹밥), 천연염색체험, 그린터 생태 문화캠프 등을 진행합니다. 자연놀이터에서는 바다체험(낚시, 조개잡이), 흙 체험(흙 민화 그리기, 흙 놀이), 숲 체험(나무 알기, 꽃자왈 탐방), 원예체험(미니텃밭, 미니정원)을 할 수 있으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창작 공간인 이야기가 있는 자연공방에서는 자연물공예, 생태놀이교구, 생활용품만들기, 솜씨부리기(북 아트, 쉼트공예) 등이 가능합니다.



## 인천남구미추홀지역자활센터 **미추패션사업단**

2001년 애견옷 시장의 틈새를 공략해 시작한 사업단으로, 현재 15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웃도어용품에 눈을 돌려 다양한 스포츠 레저용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여주민은 주로 20~30대로 한부모 여성이 대부분이고, 사업단 참여를 통해 기술을 배우고 전문 기능인으로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 진천지역자활센터 키즈카페사업단 **헬로키즈**

2011년 사회적일자리자활사업으로 시작한 kids cafe 헬로키즈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인프라로써의 역할을 진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진천지역의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엄마들에게는 건전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2016년 자활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 헬로키즈 이용안내

- 입장료: 아이 1명 2시간 5,000원/보호자입장료3,000원
- 단체할인 : 20명 20% 할인
- 다자녀가구 할인 : 셋째자녀부터 입장료 무료(건강의료보험증 제시)
- 진천지역내 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관련센터 아동 20% 할인 인솔자 무료입장(단 2시간 이용시)
- 다문화가정아동 보호자 무료입장, 진천지역자활센터참여주민가정아동 무료입장





'헬로키즈' 카페를 찾은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놀이기구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린터드림'의 생태체험학습장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감귤따기체험' 등 자연과 친해지는 법을 배운다.

자활상품이 좋다

# 아름다운 추억 에세이 낭만과 힐링을 주는 이어도여행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 섬으로 초대합니다

100만 년 전 바다 밑에서 발버둥 치며 고개 내밀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잔잔했던 바다도 덩달아 춤추고 바위들도 별똥별처럼 날아다니던 시절  
설문대할망은 그 섬에 오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적막해진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분화구에서 태어난 왕자는 먼 나라 공주를 만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설문대할망, 한라산신, 송당할망, 영등신, 칠머리당 모두 이어도 이야기입니다.



맨 발로 걸어와 사냥을 한 사람들도, 망망대해 배를 짓고 들이 닦친 삼별초도,  
관탈섬 지나며 모든 것 내려놓은 유배인들도 다 이 섬의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용암 위에 만들어진 울창한 숲과 바다,  
신화와 전설이 역사와 어우러진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섬 속에 작지만 안락한 쉼터를 만들어 초대합니다.  
그 섬과 나눈 기쁜 시간, 깊은 추억이 되길 바라봅니다.

## 이러도에서 만나는 여행상품

### 하나 나를 아끼는 시간

지친 일상과 업무에 지친 당신을 채우는 여행

세상도 수많은 사람과 삶이 엮여 아름답듯이 수십 가지 빛이 뒤섞여 오묘한 빛깔로 반짝이는 제주바다... 모래 위에 살포시 내 흔적을 남기고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소리 말 걸면 대답하는 그 속으로 걸어갑니다.



비양도와 금능해변

#### 힐링상품 소개

-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열심히 일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를 비롯해 사회복지사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는 상품
- 생태숲에 숙소를 정하고, 산책·명상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행
- 울레길, 유배길, 순례길 등 길에서 만나는 나
- 명상, 허브족욕체험, 발마사지
- 푸른 바다와 나란히 모래 해변 맨발로 걷기



울레길

### 둘 생명을 만나는 시간

화산섬 제주 탄생 이야기와 함께 하는 생태 환경 체험 여행

1950m 한라산, 그 자락에 자리 잡은 360여 개의 오름들, 오직 제주에서만 느끼는 신비로운 용암숲 곳자왈, 작은 산길에 이름도 재미있는 말오줌때나무, 까마귀베게, 때죽나무...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화산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 지형을 자랑하는 한라산, 산방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섬 전체가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맞이합니다. "흔저옵서예~"



수월봉 지질대

#### 생태, 환경 체험상품 소개

-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 해설자와 강사진의 해설 및 강의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제대로 보기
- 한라산 등반, 오름 등반, 동굴 체험
- 제주 생태계 허파 용암숲 곳자왈 탐방



병약곳자왈 가을

### 셋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자활센터를 위한 알찬 길동무

섬은 시작과 끝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해마다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연수와 세미나를 위해 찾는 제주에서 편안한 쉼과 함께 새로운 꿈을 그리세요. 기업 연수와 세미나 교육을 위해 가장 알맞은 장소와 프로그램을 설계해 편안하면서 알찬 교육을 약속합니다. 특히 자활센터,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진을 연계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길동무가 됩니다.



협동조합 탐방

#### 기업연수 및 세미나 프로그램 소개

- 기업, 단체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 제주도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단체 소개 및 방문
- 건강한 먹거리, 문화체험 등 에너지 충전 상품 연계
- 자활 인센티브 여행, 기업 연수 추천 상품



자활센터 방문

## 넛 제주, 그 깊이를 느끼는 역사 문화 체험 여행

1만 년 제주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배우는 시간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는 곳 제주. 오랜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곳에서는, 1만 년 전 화석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 유적지도 볼 수 있습니다. 유서 깊은 박물관 제주에서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체험하는 알찬 시간을 보내십시오.

### 제주 역사 문화 체험 상품 소개

- 4·3 유적, 일제 진지 동굴 등 역사 현장 체험
- 선사유적지, 제주자연사박물관 등 역사 문화 유적지 탐방
- 테우 타기, 배낚시, 자연물 공예, 감귤 따기 등 제주도의 특색 있는 체험과 놀이가 있는 여행
- 맑고 투명한 청정 제주바다에서 물놀이(여름철)
- 사계절 열리는 지역별 행사 및 축제 관람



배낚시



감귤따기 체험

## 다섯 숨겨진 제주를 찾아 느끼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곳, 그 맛

식상한 제주 여행은 싫다! 번잡한 관광지를 떠나 나만의 추억과 행복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여행상품. 제주 사람도 잘 모르는 숨겨진 비경과 맛집에서 멋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여행을 위한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드립니다.

### 제주 명소 탐방 프로그램 소개

- 숨겨진 나만의 숨은 비경 탐방
- 오소록(가려져 잘 보이지 않고 아늑하다'는 제주어)한 맛집 탐방
-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보는 재미, 그리고 먹는 재미
- 제주 자유 여행객을 위한 여행 설계 및 안내



제주도 참돔회



고등어 구이와 회

문의: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www.ejahwal.or.kr](http://www.ejahwal.or.kr) ☎ 064-721-1280

##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살펴보기

###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란?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생산·협동·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며 제주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지역자활센터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협동조합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지역사회 미래

노동과 생산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민주적 운영 속에 지역사회 인적 자원과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경제적 문제해결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사회를 이룸.

- **지역을 활력 있게** : 중앙권력과 자본에 의해 종속되고 왜곡된 정치경제적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 내 경제주체들이 연대하고 협동하여 스스로 삶과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지역 순환적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한다.
- **사람을 행복하게** : 조합원이 주인이자 주체로서 책임과 권리를 보장받는 민주적이고 효율적 조직이자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가난과 차별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 **자연을 이롭게** : 자연을 수탈대상으로 삼고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 또는 미래세대 환경자원을 낭비하는 환경 불평등을 극복하고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합리적 이용과 보존으로 자연과 인간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든다.
- **사회를 평등하게** : 불평등과 가난, 차별과 배제를 낳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경제를 극복하고 인류가 오랜 세월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온 협동과 공동체 사회 가치와 이념을 미래지향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평등사회를 지향한다.

# 청정지역 제주, 진정한 관광천국을 향하여...

전 세계인이 찾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명소,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자랑하는 이곳은 이미 세계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있다.

하지만 정체는 곧 퇴보로 밀려나가는 현대화 사회에 발맞춰 나날이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에게는 제주에 대한 추억과 동경이 마음 깊이 존재한다. 편안하기도, 특별하기도 한 제주는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여행을 하고 싶지만 심적·물적 여유가 없어 멀리 떠나기 어려울 때 선택하기 좋은 여행지이다. 우리나라이지만 바다 건너 있는 큰 섬인지라, 해외에 가는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다. 게다가 신혼여행, 수학여행, 각종 세미나 등을 위한 장소로 많이 찾다 보니 누구나 한두 번쯤은 제주를 방문했을 것이다. 그 경험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서 인지 '제주' 하면 묘한 연결고리가 느껴지기도 한다.

## 청정해역 제주, 관광천국 제주

청정해역을 갖춘 제주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화산암으로 이뤄져 있어 화산암반수를 활용한 음용수의 품질도 뛰어나다. 제주해역에는 국내 해양생물의 51%가 서식하는 만큼 생물의 보고일 뿐 아니라 해양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는 보물창고다. 또한 한라산으로 대표되는 화산도이다 보니 신기한 지형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중앙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김녕해수욕장에서 송악산까지 남북으로 이어지고, 수월봉에서 성산 일출봉까지 동서로 뻗어있다. 관광천국이라 불리는 제주는 남한 최고봉이자 부드러운 산세를 자랑하는 한라산과 힐링여행의 대표지 우도,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성산일출봉 등 수많은 볼거리가 즐비해 있다. 제주로 몰리는 전 세계 관광객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간 약 300만 명이 찾는 성산일출봉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으로 연일 탐방객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으며, 올해 최단기간 2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제주 전체를 보면 더욱 놀라운 숫자들이 나열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만 286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숫자다. 올해도 1분기에만 49만 명 가까이 제주를 찾았다. 이 추세로 보면 2018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는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인프라 개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제주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성산 일출봉 일대는 각종 시설들이 추진되고 있다.

## 나날이 발전하기 위하여

글로벌 휴양지로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만큼 제주는 크고 작은 서비스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던 특별함을 선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거대한 자연환경을 갖춘 대륙의 큰 땅덩어리에 있는 관광명소들과 겨루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들을 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여기고 있는 것이다. 서울 등 다른 지역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제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언제든 편히 찾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는 시설 확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보다 현대화된 스마트한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노하우로 무장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국경을 허물고 시장을 넓혀 세계인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에 적합한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무조건적이고 홍보도 조심해야 한다. 근거 없는 선전은 반감만 초래할 수 있으니 말이다. 차분하고 성실하게 한 가지씩 개선하고 확충해 갈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 제주가 자랑스러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글 최윤호 동아일보 기자 | 사진 동아일보DB

# 우리 같은 자활 내:일은 희망

자활사업 20년 20년 자활제도화 15주년, 자활 한마당 축제

## 2015 자활 한마당 축제

자활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며, 시민들에게 자활사업을 홍보하고  
부대행사에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개최.

## 일시

2015년 10월 20일 (화) 10시~17시

## 장소

서울시청 시민광장 및 시민청

## 참가자

자활 관계자와 시민 약 2천여명

## 주최

주최 :  보건복지부, 2015 자활 한마당 축제 참가단체

강원광역자활센터, 경기광역자활센터, 경남광역자활센터, 경북광역자활센터, 광주광역자활센터,  
대구광역자활센터, 대전광역자활센터, 부산광역자활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자활센터,  
전남광역자활센터, 전북광역자활센터, 충남광역자활센터, 충북광역자활센터, 전국자활기업  
희망나르미, 전국자활기업 에너지복지센터, 전국자활기업 돌봄사회적협동조합, 부산돌봄센터,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경기자활기업협회, 인천자활기업협회, 대구자활기업협회, 한국자활연수원

## 주관

 **새마을 한국 지역자활센터협회**

 **중앙자활센터**

# 다시 웃음을 되찾게 해준 자활사업단 적응 이야기

강서지역자활센터 손나래 사업단 한세정 선생님

암투병 극복 후, 사회 복귀에 한계를 느끼던 그녀에게 한줄기 빛으로 다가온 자활센터.  
다시 세상 밖으로 활기차게 발돋움한 한세정 선생님과의  
눈물과 웃음 가득했던 인터뷰 들어보실래요?



손나래공방에서는 미싱과 퀼트기술을 접목시킨 손공예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취미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손나래공방 ㉠ 02-2065-1590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새내2길 29

### 손나래 사업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여러 차례의 수술과 항암치료 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회로 나갈 수 없었어요. 예전에 애견미용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만 가위질을 해도 팔에 부종이 생겨서 계속 일하기가 힘들었어요.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던 차에, 차상위계층 신청으로 찾은 영창주민센터에서 자활센터를 소개해주더군요. 아직 부모님이 계시기에 받을 수 없다 여겼던 공과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평소 좋아하던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손나래 공방에 마침 자리가 있어서 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단 참여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일도 재밌고, 무엇보다 매일 갈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점에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아침 산책을 하다 젖은 머리로 허겁지겁 만원버스에 올라타 끼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며 눈물 흘리기도 했어요. 10만원을 벌더라도 일하며 사람노릇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자활센터는 저에게 엄청난 기회였고,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줬죠.

### 사업단 참여하신지 3개월 정도 되셨는데, 하시는 일은 어떤가요?

현재 6명이 함께 일하는데, 항상 서로 배려하고 돕고 있어요. 제가 낮가림이 없는 편이라 적응은 조금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재봉기술도 배우고 있는데, 털실수세미 만드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서툴지만 제 작품이 나오니까 좋고요. 많이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는 언니들과 같이 새로운 작품을 구상해보기도 하는데, 우선은 기본기를 다져야 창작이 가능하니까 열심히 배워야죠.

**추천해주세요!**  
'우리 기업을 소개합니다' 코너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자활기업은 자활임기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 02-3415-6941



“많이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는 언니들과 같이 새로운 작품을 구상해보기도 하는데, 우선은 기본기를 다져야 창작이 가능하니까 열심히 배워야죠”

**지금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이 선생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나요?**

저는 수화통역사를 꿈꾸고 있어요. 수화통역사 취업을 할 때 사회복지사·수화통역사·컴퓨터 자격증,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필요하더라고요. 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지만 현재 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담당선생님이 노인여성들을 위한 자수 수업도 운영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게 다시 한 번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어요. 몇 년 동안 병원만 다닐 때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사업단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전문 강사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재봉이나 뜨개질의 기본부터 알려 주시는 학습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선생님들도 노하우를 잘 가르쳐 주시지만, 정말 전문적인 기본틀과 기계조작방법 등 체계적인 학습방식을 보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여자들도 나중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니 자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충족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활은 나에게 00다!**

자활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한 첫 계단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인데, 항암치료를 받을 때는 많이 우울했었어요. 그런데 자활센터사업에 참여한 후부터 다시 예전 성격을 되찾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해요. 퇴근해 맥주를 사서 집에 들어가 냉동실에 살짝 얼렸다가 시원하게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웃음). 

글·사진 | 김지선

**강서지역자활센터**

2000년 8월에 설립되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과 사회적 가치 추구, 지역사회와의 연대라는 사명을 갖고 0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http://www.yonseijahwal.or.kr> ☎ 02-2605-1222

추천 먹거리

# 나눔푸드 '녹수청산'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맞으세요

수제유과, 전북진안

사회적기업 '나눔푸드(대표 김치훈)'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분주하다.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인 '유과' 만들기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국내산 재료만을 고집하는 '착한 유과' 생산지,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나눔푸드를 찾았다.



**특별히 유과사업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나눔푸드가 아니라 2003년 ‘푸른먹거리사업단’이라는 자활사업단으로 6명이 함께 시작했어요. 당시 식당 운영을 하다가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고요. 시골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명절 때 잠깐 판매하기도 용이하고 진안 유과가 맛있기도 해서 사업 아이템으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녹수청산’입니다.

**그럼, 녹수청산 이외에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신건가요. 나눔푸드는 어떤 곳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녹수청산은 나눔푸드 중 유과 제조업체이고요, 이외에 행복도시락·나누미홍삼·출장뷔페·행복쇼핑몰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단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복도시락은 결식 이웃에게 무료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서비스를 위탁받아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에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녹수청산 인력은 어떤가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일손이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녹수청산에는 보통 6분이 일하고 계세요. 명절 때 평균 8시간씩 일하지만 바쁘고 정신없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는 주문이 엄청 몰리거든요. 그 때에는 다른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마을 분들이 지나시다가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시골다운 정겨운 모습이죠?(웃음)

**이곳만의 유과 만드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맛있기로 소문났던데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좀 소개해주세요.**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수청산 유과는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과 고도 300m 이상 산간 고랭지의 청정수로 재배되는 진안참쌀이 주 재료예요. 진안에서 생산한 것만 사용하고 있고, 참깨, 들깨, 콩, 흑임자, 조청 등 나머지 모든 재료도 100% 국내산입니다.



“ 녹수청산은 진안에서 생산된 진안참쌀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이외에 모든 재료도 100% 국내산을 씁니다.

” 유과는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지 전 과정 기계로 제조하고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부공정만 기계로 하고 거의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일손 부족하고 바쁘기도 한데요, 손맛이라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손수 만들고 있습니다. 제조와 별개이긴 하지만 최근 포장 리뉴얼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요, 내년 설부터 포장지를 소포장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유과가 박스 안에 한꺼번에 담겨 포장되고 있는데 보관문제 때문에 작은 포장 여러 개에 나눠 담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수청산 유과**

전북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3길 15-22

구입문의 ☎ 063-433-7017

온라인 판매처 [www.nanumfood.or.kr](http://www.nanumfood.or.kr) → 행복소핑몰

**유과는 상시제조가 아니라 명절 전 잠깐 만든다고 하셨는데, 따로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보통 추석이나 설 한 달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유과는 짧은 시간에 매출 올리는 부가가치 사업 중 하나예요. 단기간에 반짝 특수를 누리는 사업인 셈이죠. 제조 기간은 한 달에서 길면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유과를 만들 때에는 모기 입도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는지 확인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처서가 지나야 유과 만들기 좋다고 하셨는데, 찬 바람이 살짝 불어야 유과가 들어붙지 않고 김이 잘 빠져 바삭해지기 때문이라네요.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다 어렵죠(웃음). 그 중 가장 힘든 건 시설투자예요. 저희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이나 전통식품품질인증 등을 받고 싶은데 인증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인증 받아서 항상 일자리를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런 점이 어렵고 또 아쉽습니다. 저희처럼 이익창출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특히 그렇죠.

**어렵다곤 하시지만, 그래도 미소 잃지 않고 가족처럼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팀웍은 괜찮은 편인가요. 다들 얼마나 오래 같이 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단 별로 업무량이 다르고 함께 지낸 기간이 달라서 평균 근무 기간을 얘기하긴 좀 힘들지만 모두 파이팅 넘치게 일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 때 서로 도와주시고, 내일 내일 따지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셔서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될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사장이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공장 지어서 개소할 때 마음이 몽클하더라고요. 그동안 이것저것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자활공동체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 했다는 게 뿌듯했어요. 또 먹을거리를 만드는 업체라서 고객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 말 하나하나가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녹수청산 혹은 나눔푸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선 녹수청산은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과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나눔푸드 전체로 본다면, 부가가치 사업을 늘리고 싶어요. 홍삼이나 유과도 이 사업 중 하나인데요, 중년 여성을 위한 홍삼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이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게 큰 계획입니다. 직원들과 매일 사업 구상과 상품 개발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싶습니다. 

글 | 손희정

# 잔칫상에 꼭 오르던 과자, 유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입에 넣으면 바삭하고 사르르 녹는 식감이 일품인 유과. 추석이나 설이면 늘 빠지지 않고 상 한편에 자리하고 있던 유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먹거리다. 찹쌀의 고소함과 조청의 쫄쫄하고 달달한 맛이 잘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좋은 유과는 어떤 제조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것일까.



## 오랜 시간 정성 어린 손길 담겨 탄생

유과(油果)는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과자로 기름에 지져서 만들기 때문에 ‘기름 유(油)’자를 붙였다. 서양과자는 대부분 밀가루가 주재료이지만, 우리과자는 대개 쌀로 만든다. 유과는 덩고 습기 많은 여름철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많이 만든다.

유과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짧은 시간에 만들기가 어렵다. 찹쌀을 보름 정도 삭힌 뒤 가루를 내어 찌고 이를 절구에 오래 쳐서 얇게 편 다음 용도에 맞게 자른다. 바람이 안 통하도록 말려 두었다가 잘 부풀도록 기름에 튀겨 내고 여기에 고아 낸 엿을 발라 정갈하게 만든 고물을 묻혀야 한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야 하므로 집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다.

또 바삭바삭하고 입안에서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러워야 하는데 노련한 솜씨가 아니고는 쉬이 만들 수 없다. 콩물과 술이 들어가면 더 바삭거린다. 이때 너무 많이 넣으면 잘 부서지고 적게 들어가면 기름에 튀길 때 부풀지 않는다.

유과 만드는 쌀은 보통 떡 하듯이 준비해서는 안 된다. 찹쌀을 씻지 말고 물에 담가 골마지가 생기게 일주일쯤 둔다. 찹쌀이 삭으면 깨끗이 씻어서 건져 뺀다. 찹쌀가루에 술과 콩, 물을 섞어서 찌내고 절구로 오래 쳐야 하는데 이때 치는 힘에 따라 곱거나 거칠어진다. 도마에 녹말가루나 마른 떡가

루를 고르게 펴고 그 위에 잘 친 떡을 쏘아서 얇게 민 다음 알맞게 자른다. 이 마른 가루를 번가루라고 하는데 방바닥에 종이를 깔고 번가루 바른 떡을 넣어 말린다. 바람을 쏘이면 곱이 말라서 갈라지므로 바깥에서 말리지 않는다. 이 말린 떡을 강정 바탕이라고 한다. 이것을 향아리에 보관했다가 유과가 필요할 때 튀기면 된다.

## 기름 온도 - 모양 잡기 - 건조 삼박자 맞아야

튀길 때는 기름 냄비를 두 개 준비해 온도 차이를 둔다. 처음에는 110~120℃ 정도의 낮은 온도에 넣어 부풀 때까지 뒤적이면서 튀긴다. 기름에 넣으면 확 부풀어 오른다. 큰 것은 뒤틀어지지 않도록 기름에 잠긴 채로 네 귀를 손가락으로 눌러 반듯하게 모양을 잡으면서 튀겨 건진다. 다시 150℃ 정도의 기름에 넣어 튀기면 곱이 단단해진다. 튀긴 강정은 종이 위에 넣어 기름을 빼야 담백하고 가볍다. 다시 끓은 엿물에 넣었다가 건져 갖가지 고물을 묻히는데 이 때 엿과 같은 농도가 되면 먹을 때 끈적거리고 너무 묽으면 고물이 젖고 잘 떨어진다. 고물로는 하얀 밥풀을 그대로 붙이기도 하지만 잘게 부수어 아레미에 친 세반을 묻히기도 하는데 이를 ‘세반강정’이라 한다. 쌀나락을 튀겨 붙인 것은 매화꽃 같다고 해 ‘매화강정’이라 한다. 이외에 들깨, 참깨, 흑임자, 계핏가루, 잣가루 등을 묻히기도 한다.  글 | 손희정

# 나에게 꼭 맞는 개별급여 ‘맞춤형 급여’로 행복 맞추기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 **맞춤형 급여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 **맞춤형 급여로 왜 바뀌나요?** — 일할 능력이 없는 어려운 분들은 지금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어려운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형편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나아졌다 해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은 지금과 동일하게 또는 확대해서 계속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지원자격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 지원종류          | 변경   | 시행시기   |                         |
|---------------|--|--|-------------------------|
| 자활근로          | 의무참여자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 2015년 7월                |
|               | 희망참여자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2015년                   |
|               | 차상위자활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br>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 2015년 12월까지<br>2016년 1월 |
| 자산형성          | 희망키움 I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015년 7월                |
|               | 희망키움 II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br>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015년 12월까지<br>2016년 1월 |
| 정부양곡<br>할인    | 수급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2015년 7월까지              |
|               | 차상위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br>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는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br>*한부모 보호대상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차상위자활 가구, 장애인수당 및 연금수급 가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2015년 7월                |
| 근로능력<br>평가 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으로<br>근로능력 부재 판정을 받고자 신청한 자 | 2015년 7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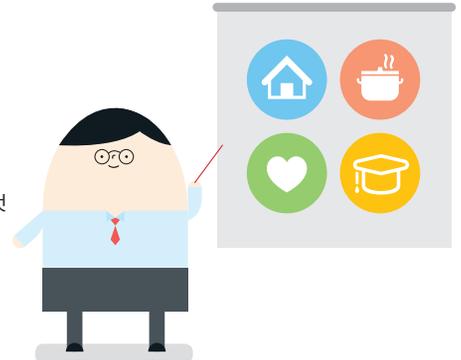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맞춤형 급여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금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134만 명, 그리고 지금의 절반이 넘는 76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책적 개입이 부족했던 중위 50% 이하 가구에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에 보호하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생계, 주거비용으로 매월 평균 42만원을 지원해 드렸지만, 개편이 되면 이 금액이 47만7000원으로 약 5만40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13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4인 기준 166만원)보다 약간 소득이 높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주거와 교육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맞춤형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 신청이 없으며, 새로운 수급자 분들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웠지만 기초수급 대상 요건에 맞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주민센터에서 이번 맞춤형 복지 급여 개편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어 설명**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 **의료급여**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
- **주거급여** :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것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0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구분 | 선정기준       | 기준액(원)  |           |           |           |           |           |           |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 | 중위소득 28%이하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1,619,764 | 1,838,491 |
| 의료 | 중위소득 40%이하 | 624,935 | 1,061,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2,313,948 | 2,626,416 |
| 주거 | 중위소득 43%이하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2,487,494 | 2,823,397 |
| 교육 | 중위소득 50%이하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3,283,020 |

·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인 2인가구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0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라·계부·계모 제외)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파고르 사람들, 브란트 사람들

## 영화로 보는 협동조합의 가치

‘사회적경제’ 들어보셨나요?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쟁과 이윤 중심에서 공정, 연대, 나눔 등의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인데요, <파고르 사람들, 브란트 사람들>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관해 살펴볼까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다양한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그 수는 7,000여 개가 넘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시기에도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할 중요한 가치는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입니다. 모극장이 배급하고 있는 영화 <파고르 사람들, 브란트 사람들>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관하여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 영화 속 배경 '몬드라곤 협동조합'

1956년 산골마을에서 5명이 모여 석유난로공장으로 시작한 몬드라곤은 현재 세계 최대 협동조합그룹으로 성장해 매출 30조 원, 고용순위 3위의 대기업입니다. 90년대 이후 몬드라곤은 원가절감과 시장 확대를 위한 국제화와 열린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몬드라곤의 산하 계열사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몬드라곤 그룹 내의 전자부분 파고르가 파산했습니다. 특히 전자부분 파고르는 유럽 5대 가전업체에 들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컸습니다.

### 영화 <파고르 사람들, 브란트 사람들>

2005년 6월 파고르는 프랑스의 가전업체인 브란트를 인수합병합니다. 이때 파고르는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의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부분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파고르의 탈 현지화 정책으로 협동조합 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파고르 사람들, 브란트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원이 되지 못한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파고르의 탈현지화 정책 속에서 협동조합원이 되지 못한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90년 몬드라곤이 자본의 세계화 시기에 대응하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기업의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몬드라곤의 국제화 정책과 파고르의 파산을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와 운영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 **‘반면교사로 다가온 파고르 파산’**

파고르의 파산은 금융위기 속 매출감소 및 고용위기 등에 의해 초래됐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잇고 자본주의 기업처럼 경영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본 틀은 시장경제 시스템이며, 협동조합 역시 자본주의의 법칙에 따라 변화합니다. 시장경제는 능력과 생산에 따라 기회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개인과 기업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과잉 생산과 자원낭비, 자유경쟁을 통한 무계획적인

생산은 공황이나 실업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쟁과 이윤 중심에서 공정, 연대, 나눔 등의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장경제가 자본 중심이라면 사회적경제는 인간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고르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발전된 협동조합의 모델을 만들어야 나가야 하겠습니다.  글 | 김선미(모극장)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이하 모극장)은 대자본의 영화시장과 독과점으로 인한 영화인들의 영화 제작 및 생산 참여의 기회박탈, 관객들의 관람권 소외 및 문화 다양성 왜소화 문제를 공동체상영 중심 대안적인 영화 유통방식으로 해결하고자 2013년 설립된 대안형 영화배급 협동조합입니다.

#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A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Q&A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근로유지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 ④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합니다. 단,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20% 미만으로 운영합니다.

자활급여란 무엇인가요?



Q&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한 자활급여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근로유지형 제외).

자활사례관리란 무엇인가요?



Q&A

참여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자활프로그램의 지원과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과정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은 무엇인가요?



Q&A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설정 프로그램입니다.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배치된 참여자는 자활사업 관련 상담 및 기초교육을 받은 뒤, 개인별 자립경로(IAP)와 자활지원계획(ISP)을 수립합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1개월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새 옷 입은 자활읽기 어땠나요?

기존의 어려움과 복잡함은 탈탈 털고 쉽고 재미있는 정보만을 모아 새롭게 단장한 자활읽기.  
자활센터의 존재와 활동을 보다 널리 알리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자활읽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편안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마대현 전남

제14호 자활읽기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 자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읽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자활 동향이나 자활과 관련된 시사적인 내용이 함께 어우러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이 너무 무겁고 딱딱하지 않은 선에서 쉽게 이야기되었으면 하세요^^

박하나 충북

희망스토리를 통해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 막연했던 미래 계획에 조금은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숫자로 보는 자활이야기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 수치로 정리되니 더 와 닿는 느낌이 들었다. 더불어 예비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것이나 자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권민 서울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이러한 소책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네요. 많은 자활 성공사례나 성공사업단 등을 통해, 자활사업 아이템 개발과 자활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얻기를 희망합니다.

김병기 논산

# 서로 좋은 가게



서로 좋은 가게

www.sogoodstore.co.kr

착한소비, 그 이상의 가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정직하게 만들고 -  
올바르게 나누고 -  
착하게 소비해서 -  
서로 좋아요, 서로 좋은가게!

## ● 서로 좋은가게에 입점하려면 \_

### 대상

자활, 장애인, 노인, 사회적 기업 등 생산시설

### 선정기준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자활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여 생산되어야 합니다.

※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수산물)의 경우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정무역 등을 취급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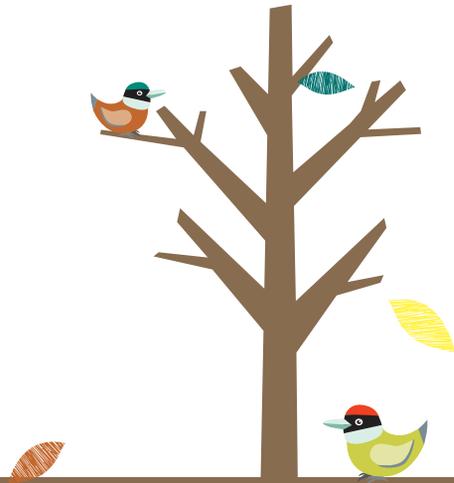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품의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서로 좋은가게를 개설하려면 \_



: 입점 및 개설 상담 ☎ 031-305-5775 / 고객센터 1566-9659





이제 단풍이 지고 나면,  
숲은 본연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 숲을 지키고 있었던 단단한 숲의 뼈대가  
드러날 시기입니다.

내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은 또 다른 생의 시작이었음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잎새들 뒤척이는 소리, 딱따구리 부부의 대화,  
개가시나무, 으름난초, 고사리들의 수런거림이  
이제 제 삶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땅바닥을 쳐야 튀어 오르는 공처럼, 땅바닥에 떨어지는  
아픔 뒤에 다른 삶이 있음을 가을 숲에서 생각합니다.

(중략)

자활성공수기 중에서